

# 시와 주민의 예술 상상력 결합...지역문화 새 지평

주민참여형 'AI 미디어아트' 전시  
'장흥, 그리고 나'...장동면 개척  
농식품부 지원...28일까지 운영  
디지털 예술작가 작품 10점 선봬

장흥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지역 주민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이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농농어촌신활력센터는 지난 22일 장동면 한마음센터 다목적회관에서 주민 참여형 AI 미디어아트 2차 전시회인 '장흥, 그리고 나'의 개최식을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전시는 장흥군이 주최하고 센터가 주관

하는 '2025년 장흥군 역량강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인 '미디어아트로 여는 공간'의 최종 성과물이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지역 주민이 직접 첨단 기술을 배워 장흥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예술 콘텐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월27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AI 기술과 프로그래밍 맵핑 등 전문적인 디지털 미디어아트 기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직접 작품을 기획·제작해 왔다.

특히 이번 2차 전시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전시회 '반짝반짝, 빛나는 장흥다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깊어진 주민들의 시선을 담았다.

센터는 2차 전시를 앞두고 주민 작가별 작품의 오브제와 표현 방향에 대한 1대1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투박



했던 초기 아이디어는 더욱 정교하고 몰입감 넘치는 10점의 수준 높은 디지털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22일 열린 개막식에는 배권세 장흥군농어촌

신활력센터장과 기술 지도를 총괄한 ㈜이도콘텐즈랩 선영철 대표를 비롯해 주민 작가,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민 작가와 전문가의 생생한 작

품 설명을 들으며, 지역 문화 콘텐츠로 훌륭하게 성장한 결과물을 감상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배권세 센터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교육과 심화 컨설팅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훌륭한 작품을 완성해 낸 주민 작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전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첨단 콘텐츠로 만들어낸 '주민 주도형 문화 활성화'의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탐방열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롯이 담긴 미디어아트 전시회 '장흥, 그리고 나'는 오는 28일까지 장동면 한마음센터 다목적회관에서 이어진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

## 고흥 '수제맥주 브루어리' 상권 활력 특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거점 공간

별별마켓·비어락 행사 등 입소문

오늘부터 전통시장 천변서 야시장

고흥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 거점 공간으로 탄생한 '수제맥주 브루어리'가 지역 경제와 상권을 살리는 활력 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수제맥주 브루어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설립된 '고흥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운영을 맡았다.

1층 양조 시설에서 갖 생소한 신선한 로컬 맥

주와 2층의 감각적인 펍(Pub)은 이미 트렌디한 지역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조합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별별마켓'과 '비어락 행사'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고흥전통시장상인회가 주관하는 '별별야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손잡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다.

올여름 고흥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별별야시장은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로 무장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행사는 오는 28일과 27일을 시작으로, 7월 24-25일, 8월 28-29일까지 총 3회(6일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고흥전통시장 천변과 수제맥주

브루어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브루어리에서 직접 생산한 수제맥주를 5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해 최고의 인기 메뉴로 등극한 '유자맥주' 역시 반값 할인 대상에 포함돼 방문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맥주 한 잔에 담긴 고흥의 이야기와 젊은 감각이 야시장의 활기와 어우러져 전통시장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로컬 콘텐츠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주성학 기자

## 여수상의, 지역 금융·공공기관 초청 간담회

산단 기업 경영 여건·금융 지원 논의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국가산단 입주 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권 및 공공기관과 소통망 구축에 나섰다.

25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전남 상의 소통마루에서 한문선 회장 주재로 '여수지역 금융·공공기관 대표자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여개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의 이해와 공감, 여수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구체적인 현황

설명을 청취하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당면 과제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문선 회장은 "여수 경제의 든든한 중심축인 국가산단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여수상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탄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포스코미술관 광양을 찾은 관람객들이 특별기획전 '상상으로 엮인 지도(Where Stories Meet)'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 광양제철소, Park1538 개관 1주년 특별전

4-6월 두달간...미술관 '지도'로 연출

광양제철소가 Park1538 광양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특별기획전 '상상으로 엮인 지도(Where Stories Meet)'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25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부터 두달간 포스코미술관 광양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미술관을 지역 문화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는 여정을 '지도'에 은유해 기획했다.

전시에는 서영기, 이조흠, 임수범, 지희경 등 국내외의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 4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화, 조각, 대형 천장 설치 미술 등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미술관 전체를 하나의 창의적인 지도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관람객이 종이 지도 형태의 리플릿을 손에 쥐고 1층과 2층을 넘나들며 전시장이라는 지

형 위를 여행하듯 관람하도록 연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상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또한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참여 작가 직접 강사로 나선 '가족 미술체험교실'에는 임직원 가족 60여팀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가 미술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스코미술관 광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곽동현 기자

## 담양소방, 공동주택 '피난기구 사용법' 홍보

경량 칸막이 등 대피 요령 교육

담양소방서는 25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바른 피난기구 사용법과 대피시설 확보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화재 시 대피 경로가 차단될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기획됐다. 입주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자율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점 홍보 내용은 ▲아파트 구조에 따른 경량 칸막이 파괴 및 대피 공간 활용법 ▲세대 내 완

강기와 하향식 피난구의 올바른 작동법 ▲상향별 신속한 대피 행동 요령 등이다.

특히 소방은 장애물 적치는 피난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대피 공간에 대해서는 '항상 비워두기'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력히 지도 중이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순식간에 대규모 인명 피해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평소 피난 경로를 파악하고 피난기구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며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비상구 확보 등 소방·방화 시설 유지 관리에 각별히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구례군수직 인수위, 읍내 주차난 해소 현장 실사

민선9기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구례읍사무소와 구례군 보건의료원을 잇달아 방문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25일 밝혔다.

읍사무소를 찾은 인수위는 주변 주차 공간 부족을 타개할 다각적인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군민광장의 주차장 전환 ▲여성문화회관 활용 ▲주변 부지 매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보건의료원으로 이동한 위원들은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수립된 '의료원 뒤편 도로변 주차장 조성 계획'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는 사업 이행을 당부했다.

장길선 당선자는 "주차 문제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불편 사항 중 하나"라며 "인수위 기간 동안 현장에 세심하게 살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 보성군, 농번기 진드기 감염병 차단 '총력'

기피제 1만3천600개 배부

보성군은 25일 "전날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충 접근을 차단하는 진드기 기피제 1만3천600개를 읍행정복지센터와 미력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을 통해 일제히 배부했다"고 밝혔다.

봄부터 가을까지 야외 활동 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쯤쯤가무시증이 대표적이다.

특히 SFTS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15~20%에 달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지난해 보성군에서도 쯤쯤가무시증 환자가 2명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은 기피제 배부와 함께 마을 방송과 이장 회의 등을 활용한 예방 수칙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주요 수칙으로는 ▲긴 소매·긴 바지 등 올바른 옷차림 ▲풀밭 등 야외 활동 시 ▲귀가 후 즉시 샤워 ▲작업복 분리 세탁 등이다.



보성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관계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진드기 감염병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야외 활동 후 2주 내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 급속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임병연 기자